



남원시는 동절기를 맞아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막바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절기 대비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 겨울철 노인복지 행정강화

46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 2회 전화서비스·주 1회 직접방문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동절기를 맞아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막바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절기 대비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1,212명을 최종 선정,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 46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 2회 전화서비스 및 주 1회 직접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 폭설이나 한파특보 발령 때는 수시로 연락, 독거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독거노인의 안전사고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화재 및 가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을 설치, 사고율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시스템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응급관리요원은 매일 시스템 상황을 살펴 대상 노인들의 인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A, B를 받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대상 노인들의 맥을 찾아가 청소 및 식사 준비 등의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메주 효소팽서 선풍적 인기 얻어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에서 만든 순창메주가 최근 효소팽서 선풍적 인기를 끌며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메주는 이달 1일 H사 효소팽서 판매를 시작으로 최근에 3일간 효소팽서 방송을 통해 7억여원이 판매됐다. H사 하루 방송에서 판매한 양이 6,000세트로 지역특산물 부분에서는 큰 실적이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측은 앞으로 3월까지 효소팽서 방송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해 400여톤의 순창공을 매입해 만든 메주가 3월경이면 모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순창메주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전통메주의 맛을 살리면서 시설 현대화와 발효기술을 접목해 위생적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순창메주는 100%순창공과 100%천일염을 사용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순창전통메주에서 추출한 고초균과 황국균을 사용해 만들어 청국장의 풍미와

진한 전통 된장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갈뽕, 갈뽕,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HACCP인증, 로하스 인증, 전라북도지사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이 믿고 살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품을 판매하면서 농민들의 소득도 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는 지난해 400여톤의 콩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 했으며 올해는 600여톤을 수매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의 역할은 물론 효소팽서 등 새로운 유통만 확보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값 받는 농업 전북도 삼락농정 실현의 모범 모델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특히 장류제품의 판매 및 수출을 담당하는 회사로 전통장류의 현대화를 통한 장류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0년 순창군을 출자기업으로 설립했다. 순창메주를 주력상품으로 한식 간장, 식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친환경농업정책 추진 지원 나서

43억원 투자... 농가소득 올리고 건강먹거리 제공 등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선도해 나갈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 현실을 극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건강먹거리 제공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정책 13개 사업에 총 43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토양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1만4,573톤에 15억6,700만원, 논토양의 유효균산함량 증대 및 밭토양

산도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1,109ha에 2억2,200만원, 올해 신규시책인 토양개량제 살포비에 포함 1,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밭짓 환원을 위한 지역경진사업으로 1,109ha에 2억2,200만원, 올해 신규시책인 토양개량제 살포비에 포함 1,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육성을 위해 친환경살육성장려금으로 67ha에 1억5,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지원사업으로 91ha에 7,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

기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농기계 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12억3,200만원이다. 이 사업에 포함된 농기계는 콤팩트와 승용이앙기 각각 16대와 곡물건조기 10대 및 중소형 농기계 100대 등이 다. 이외에도 군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5개 사업에 6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5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과 GAP인증농가안전성 검사비, 친환경인증 안전성 검사비, 무제초제제 양중진(우렁이)지원, 비육모양상토지 원사업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바이오연구소, 복분자 초코파이 제품 기술 이전식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6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베리팜 영농조합법인 박재숙·오영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복분자 초코파이 제품 기술 이전식을 가졌다. 이날 기술 이전된 복분자 초코파이는 현재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전북도 농촌지원복합화 지원사업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가공식품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개발됐다. 연구소는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을 통해 고창의 특화작물인 복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활용도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복분자 초코파이는 복분자를 함유한 초코파이로 중장년층을 겨냥해 맛과 건강을 생각해 개발한 제품이며, 고창군 관광지에서 관광 기념품으로 판매 할 예정이다. 베리팜영농조합법인은 복분자 초코파이의 제조기술에 대한 권리를 향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하여 추후 본격적인 사업화와 판로개척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로 매출 향상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전라북도 농촌지원복합화 지원사업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태권역협력사업 베리굿소스사업 등을 통해 고창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통학택시 이용 희망자 모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택시' 이용 희망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통학택시' 이용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2km이상이고, 등하교 시에 통학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학생이다.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14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하면되며 접수 후 고창군에서 오는 24일 최종 이용대상자와 택시 운송사업자를 확정하고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운행한다. 통학택시는 회당 1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요금이 면제된다. 통학택시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8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통학택시 이용학생들은 등교시간이 20분~30분 이상 단축되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등하교 시킬 수 있어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운영

순창군이 일상생활에서 호흡, 체조, 심신운동을 통해 마음과 정신을 닦는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본격 운영해 군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이번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은 6일 순창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45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2개반 9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13주 동안 월·수·화·목반으로 나눠 49회 수업이 이뤄진다. 한방 기공체조교실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명상, 호흡법 등의 습득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집중력 강화, 올바른 자세교정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영근 보건의료원장은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은 신체의 기를 활성화해 만성질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참여자들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이외에도 군은 거동불능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 방문 진료, 한의약 골관절관리교실운영, 한의약 갱년기교실 운영, 한의약 육아건강교실 등 한의약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계 전화 063-650-523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남원경찰, 마을 담당경찰관 재정비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이백파출소(소장 박인호)는 상반기 인사발령을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공감치안 강화를 위하여 관내 11개 마을별로 "우리 마을 담당경찰관" 재정비를 실시했다.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제도는 경찰관이 담당 마을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담당경찰관의 소속과 사진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을 이장들에게 담당경찰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지역문제 해결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주민친화적 치안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백 효촌마을의 한 주민은 우리마을 담당경찰관인 파출소 이종범 경위가 수시로 마을회관에 찾아와 안부도 물어보고 도난예방 등 범죄예방 방법도 알려주고 해서 너무 든든하고 좋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호 이백파출소장은 "각 마을 담당경찰관 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내 가족의 일처럼 도와주고 책임지고 살피어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